

독신남, 화려한 싱글인가?

여운경(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단독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여성 단독가구에 비해 경제적 측면에서 문제가 적다고 간주되는 남성 단독가구의 경제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국내 연구는 거의 없었다. 단독가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이 여성 단독가구나 노인 단독가구에 초점을 맞춰 왔었으나 최근 기러기 가족이나 남성 단독가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선정과 주제선택이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남성 단독가구를 연령별, 혼인상태별로 세분화하여 인구사회적 특성, 소비지출적 특성, 자산상태적 특성 등을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그 차이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결과와 implications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을 명료화하고 개념상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일관성 있는 용어선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본문 상에는 '독신'가구, '단독'가구, '일인'가구 등 개념이 혼용되어 있다. 연구의 내용상 본 연구의 대상은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남성 혼자 거주하는 가구'가 적합하며 그렇다면 '남성 단독가구'나 '일인 남성가구'가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적 관념상 '싱글'이나 '독신'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에서도 이를 일인가구(one person household)로 칭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남성 단독가구를 연령별, 혼인상태별로 구분하여 소비지출과 자산상태를 비교분석하고 있다(<표 4>, <표 6>, <표 7>). 이를 절대적 지출액수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지출비중으로 파악한다면 지출비목별 소비성향 파악과 소비행태의 비교를 더 용이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행태적 측면에 있어서 남성 단독가구를 여성 단독가구와 비교하는 연구를 함으로써 소비패턴의 차이를 밝혀 마케팅적 implications을 더 분명하게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연구자도 지적했듯이 남성 단독가구의 경제적 특성은 단독가구가 된 이유가 무엇이나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기러기 가족 등)의 단독가구나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나에 따라서, 혹은 일시적 독신이나 영구적(안정적) 독신이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소득계층이 어떠한가, 자산계층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또는 노인이나 비노인이나에 따라서도 매우 다른 경제적, 소비행태적 특성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연령별로, 혼인상태별로 구분하는 방법을 넘어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의 비교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넷째, 최근 사회적인 이슈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기러기 가족상태의 남성 단독가구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마케팅적 측면에서 20대 미혼 남성의 소비패턴과 라이프스

타일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집단은 일반적 남성 단독가구의 특성과는 매우 다른 측면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을 분리시켜 보다 심층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